



22140117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9 May 2014 (morning)

Vendredi 9 mai 2014 (matin)

Viernes 9 de mayo de 2014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그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서 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 나왔다. 이모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데리고 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피멍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죽어 가는 소리로 아버지를 두고, 순경을 두고 쌍말을 섞어 가며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순경들이 밀어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잡혔기

5 때문이다. 총살을 당할 거라고들 사람들은 말한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집을 빨갱이* 집이라고 손가락질할까.

대추나무 뒤편 하늘은 벌써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물도, 닭벼슬 같은 맨드라미꽃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다 싫다. 어머니의

10 젖꼭지 빛깔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떠올리게 해주고 어머니의 피멍 든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 보라색은 또 말라붙은 피와 같고 캄캄해질 징조를 보이는 빛깔이다. 열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그래서 야금야금 어둠이 모든 것을 잡아먹다가 끝내 캄캄한 밤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다. 이 세상에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곳에서 살고 싶다. 나는 빛 속에 함께 끼여 놀고 싶고, 또 빛 속에서 자고 싶다. 그러나

15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언니야, 와 자꾸 우노. 울지 마래이. 어무이가 곧 올 끼다. 언니야. 니 자꾸 그래 울면 범이 와서 콧 물어 간데이.”

하며 분선이가 누나의 손을 쥐다.

그러나 누나는 더욱더 큰 소리로 운다. 그렇게 슬픈 목소리도 아니다. 언제나 그렇다. 오직 소리를 지를 뿐이다. 울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향이다. 그러나 눈물은 끊임없이

20 질질 흐르고 있다. 많은 콧물도 줄줄 흐르고 있다. 변변히 먹지도 못하는데 눈물 콧물은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올까. 이상스럽다.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 아니야, 천치라서 그렇지. 누나는 바보다. 아니 천치다. 나는 쪽마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배가 흔들리지 않게 걸어야지. 배가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다. 이젠 배가 아프지도 고프지도 않다. 분명 배가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다. 빨리 걸으면 배가 잠을

25 깰는지도 몰라. 잠에서 깨어 뱃속이 빈 것을 보면 쪼르륵 하고 울거나 마구 벽을 긁으며 양탈을 부릴 거야.

“오빠야. 니는 와 자꾸 밖에 나가노. 니도 누부야 좀 달래라. 내사 정말로 몬 살겠다.”

분선이가 나를 보며 어른스럽게 말한다.

“내 조 문 앞에서 어무이 안 기다렸나. 그라이까 니가 누나 좀 달래라. 내사 마 말할

30 기분도 읊는 기라, 니 자꾸 이래 말시키이까 배가 잠을 깰라 안 카나.”

나는 분선이 옆 마루에 걸터앉는다. 누나는 자꾸 칠칠 운다. 상여가 나갈 때 곡하는 소리 같다. 분선이는 동그란 눈을 힘없이 깜박거린다. 사립문을 보고 있다. 나는 누나의 울음 소리가 도무지 듣기 싫다.

“누부야, 저거 바라. 어무이가 쌀자루 들고 안 오나.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며

35 오고 있데이.”

나는 거짓말을 해본다.

김원일 “어둠의 혼” <월간문학> (1973)

*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2.

바다의 이유

처음에
그것은 갈매빛 부피로 달려와서
쓰러졌다.
와서 앉으렴, 내 몸은
5 물은 천(千)의 몸부림으로 부서지면서
일어서려 했으나
다시 쓰러졌다.
스스로의 절망으로 쓰러지고 있는
자엽(自葉)의 바다
10 수없는 죽음을 몸부림치면서
수없는 부활을 몸부림치면서
일어서려 했으나
남북한 낙차처럼 쓰러지는 물
물은 스스로의 허무로
15 다시 일어서지만
일어서기 위하여 쓰러지지만
물은 목마름처럼
다시 쓰러지고 있다.
안드로메다성운의 블랙 홀 저편에서
20 밤도 낮도 없는 그 절대공간에서
물은 온몸으로 일어서려고
다시 쓰러지고 있다.

허만하 <해조(海藻)> (1969)